

인사말씀

會 長 李 啓 錫



우리 韓藥人은 悠久한 歷史의 흐름 속에서 부단히 國民保健 向上에 기여해 오면서 학문차원에서도 萬難을 克服하며 民族醫藥의 正統性을 잘 維持·發展시켜 왔습니다.

특히 암울했던 日帝 治下에서도 韓醫藥을 갈고 닦아 겨레의 健康을 지켜온 우리 先輩 韓藥人들은 學問을 통해 團結하므로서, 燦爛한 우리 韓藥文化의 주체적 矜持와 自尊心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배 韓藥人의 智慧와 崇高한 뜻을 이어받아 지난 97년 4월 會員들의 學術知識을 담은 학술지 '大韓韓藥'을 誕生시켰으며, 이제 그 6號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正統 韓藥人이라는 自矜心과 使命感으로 지속적인 學術事業을 통해 死藏될 우려가 있는 소중한 名方을 集成함으로써 우리의 力量을 發揮하고 더불어 이러한 귀중한 學術資料를 통해 後學들이 韓醫藥을 研究 發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世界化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들의 지속적인 學術事業이 年輪을 쌓아가는 동안 世界醫療市場에 우리 韓醫藥의 優秀性을 알리고 影響力을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創刊號에서 6號誌에 이르기까지 남다른 熱情과 愛情을 보여주시며, 오랜 세월동안 갈고 닦아 오신 연구결과를 사심없이 公開해 주신 會員 여러분께 진심으로 感謝드립니다.

아울러 '大韓韓藥' 6號誌가 發刊되기까지 渾身の 노력을 다해주신 學術委員會의 勞苦에 感謝드립니다.

2002年 6月